

학교생활

## 특목·자사고 합격하면 무조건 입학해야 하나요?

아이가 서울 소재 지역 단위 자사고에 최종 합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사고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진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넣었는데 덜컥 합격하고 나니 진학 후에 치열한 내신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하네요. 자사고에 등록하지 않고 바로 일반고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정아 (43·서울 강남구 도곡동)

# A

## 특목·자사고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고교 입학 추가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특목·자사고에 최종 합격하면,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입의 경우 어느 전형에서 합격하면 이후 진행되는 전형의 지원 자격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가장 앞서 입시를 진행하는 영재학교에 합격하면 이후 과고나 자사고에 지원할 수 없고, 과고에 지원해 합격하면 자사고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는 식입니다. 이 관계자는 “임의 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만약 일반고 진학을 원한다면 합격한 특목·자사고에 일단 입학해 일정 기간을 다니다가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 승인하에 전학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2020년 기준, 한 달의 숙련 기간을 거치고 난 뒤 4월 2일 이후 특목·자사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고 전학이 신청·처리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학 가능 시기가 변경될 수 있어 3월 중순 중에 다시 재학 중인 학교 측에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한 달의 재학 기간, 혹은 숙련 기간을 거친다 해도 학교장이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일반고 전학은 불가능합니다. @

### MORE TIP

2021학년 평준화 지역 후기고 선발·배정 절차를 보면,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는 후기고 원서 접수 시 1단계(지망)로 이들 학교에 지원하고, 탈락 시 2단계(지망)부터 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평준화 지역은 탈락 시 집에서 먼 비평준화 지역 미달 고교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뚜렷한 목표 없이 특목·자사고에 지원하는 일은 되도록 지양하기 바랍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입시

## 소인수 과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살펴보니 2학년에 수강 신청 인원이 매우 적은 것 같은 과목이 하나 편성돼 있습니다. 아이 진로와 관련돼 수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석차등급이 나오면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대입에서 이런 소수 인원이 수강한 과목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은영(48·서울 광진구 구의동)

# A

## 교과 전형에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종합 전형에서는 수강 인원과 과목 수준 등을 고려해 정성 평가됩니다.

수강 인원이 소인수 과목은 13인 이하가 수강하는 소인수 과목과 13인은 넘지만 여전히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수강자 수가 13인 이하인 소인수 과목은 학생부에 석차등급이 기재되지 않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가 기재됩니다. 석차등급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교과 환산 점수를 계산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강자 수가 13인 이상이면 석차등급이 기재되므로 교과 전형에 반영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13인 기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정성 평가됩니다. 즉 단순 이수 여부나 교과 성적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내용과 수준, 이수 과목의 경향성 등을 확인합니다.

서울 동대부여고 김용진 교사는 “수강자 수가 13인이 넘어 등급이 기재될 경우에도, 종합 전형에서는 등급뿐만 아니라 수강 인원, 원점수, 평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을 고려해 정성 평가하기 때문에 등급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상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과 전형에 지원할 경우, 등급 그대로 교과 환산 점수에 포함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

### MORE TIP

김 교사는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둔 학생이 소인수 과목을 수강할 경우, 원점수가 중요하다. 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과목의 표준편차가 작고 학생이 받은 성적의 원점수가 높으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수강해 점수 분포가 조밀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등급의 불리함을 덜 수 있다. 교과 전형에 지원할 경우, 불리한 과목을 포함하지 않는 일부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